헌법의 상상력 서평

202114110 조예나

이 책은 교수님께서 수업 때도 말씀하셨지만, “미국과 비교했을 때, 타국과 비교했을 때 어떠한가?” 라는 관점으로 주제가 서술된다. 사실 역사공부를 하는 데에 흥미가 없어서 이 강의를 통해 친숙해지고자 수강신청을 했다. 학창시절엔 그저 외우기 급급했으니까. 근데 이번 기회를 통해 조금 더 세계의 관점에서 왜 이렇게 되었는가를 생각해보게 되었다. 그리고 미국, 프랑스, 독일의 역사와 대한민국의 역사는 분명히 다르다. 따라서 바이마르 헌법을 표방한 우리나라의 헌법은 문제가 있고, 제정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쯤은 개헌이 필요하다고도 생각한다.

헌법의 사전적 정의는 ‘국가 통치 체제의 기초에 관한 각종 근본 법규의 총체. 모든 국가의 법의 체계적 기초로서 국가의 조직, 구성 및 작용에 관한 근본법이며 다른 법률이나 명령으로써 변경할 수 없는 한 국가의 최고 법규’ 이다. 따라서 나는 근간이 되는 법이니 제 1원칙이고, 개헌을 할 때는 여러 번 심사숙고 해서 해야 하며 되도록 개헌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실제로 그래야만 하기도 하다. 그러나 이승만, 박정희 시절에 수 차례의 개헌이 있었다. 따라서 나는 그 후로 약 30여년간이 지난 지금, 부조리한 헌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처럼 헌법 사이에 틈을 내주어서는 안 된다. 왜곡하려는 시도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생각보다 나라와 국민을 위하는 국회의원이 많지 않다는 점도 알았다. 그렇다면 국회의원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기 위해선 어떤 것이 필요한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만하다.

또한 제헌헌법의 원안이 의원내각제였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당연히 대통령 중심제인줄 알았는데 이승만이 정치적 승기를 잡게 되면서 대통령중심제로 확정되었다고 한다. 이에 의원들이 독재에 관한 우려와 반발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도 국민이 중심이 아니라 의원들 간의 세력다툼이라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독재에 대한 이러한 우려들은 현실이 되었다고 한다.

또한 이 책에서는 법제가 효력을 발휘하려면 현실이 이를 보증해야 한다고 한다. 전적으로 동의한다. 이상과 현실이 많이 다른 경우가 있다. 비단 나라는 사람의 인생에서도 그렇고 개개인 뿐 아니라 특히 단체로 나가게 되면 그게 더 심해진다. 논리적인 것 같으나 실효성이 없거나, 본인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려는 집단도 있다. 어느 사회던, 인간이던 이렇게 모순적인 면모를 갖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이를 보여주는 게 바이마르 헌법과 대한민국 헌법이다.

바이마르 헌법은 이상적일 헌법일 뿐 독일의 당시 상황은 처참했다. 민주주의는 발전하지 못했고, 의회의 역할은 부수적이었다. 그럼 헌법의 존재이유는 무엇인가? 허우대만 구실하고 알맹이가 없다면 이는 없어져야 하지 않은가. 헌법이 없어진다라고 생각하면 또 그거대로 나라의 근간이 흔들릴까? 적절한 개헌이 필요한 부분인가 궁금하다.

이승만은 잔여 공비를 소탕한다는 ‘명목’으로 계엄령을 선포했다. 강제로 헌법을 뜯어고치려 하였다는 점이다. 이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은 연행되어 이틀간 감금되고 강요당해 개헌안이 통과했다. 헌법제정 4년만의 일이다. 어쩌면 세상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추악하고 더러운 부분이 있다.

재선 성공한 이승만은 대형 여당을 만들었다. 그리고 무소속 의원들에게는 협박을 해서 본인을 지지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지지를 바탕으로 한 번 더 개헌을 하게 되었다. 점차 이승만의 위세가 꺾이게 되었고, 새로운 개헌을 논의했다. 내용인 즉 개헌을 통해 부통령제를 폐지하고, 이승만이 권력을 이양하는 꼴이 되었다. 이는 내각책임제로 개헌하자는 내용이 담겨있는데, 이승만은 끝까지 대통령제를 고수했고, 결국 개헌이 무력화되었다. 역시 이 또한 추함을 끝없이 보여준다.

사실 ‘정부의 인증, 다수의 합의’ 라는 말이 있으면 비판적 시각을 가지지 않은 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곤 했다. 하지만 완벽해보이던 헌법의 제정까지도 인간의 이기심이 장악했다는 점에 놀랐다. 따라서 앞으로 국가의 결정, 단체의 결정이 있으면 비판적으로 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